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2024년 1/4분기 중 동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

\*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가 2024년 1~2월 중 모니터링한 최근 동남권 경제 동향 및 부산지역 제조업 관련 현장리포트로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호)에도 수록

### ◆ 동남권 경제 동향

□ 2024년 1/4분기 중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경기는 지난해 4/4분기보다 소폭 악화

- 생산과 수요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가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

### ◆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부진 지속

□ 부산지역 제조업은 기계·운송장비, 섬유제품 등 지역 대표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 중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의료정밀, 전자제품 등의 생산활동도 최근 위축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붙 임: 1. 동남권 경제 동향  
2.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부진 지속

문의처: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문수성

Tel: 051-240-3853 Fax: 051-240-3859 E-mail: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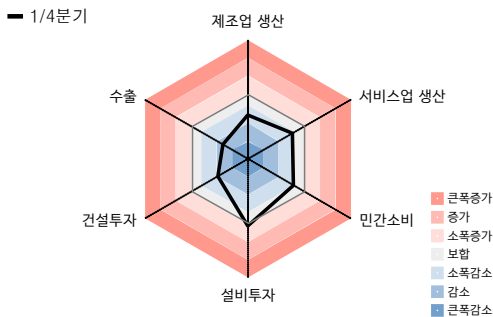
<붙임1>

요 약

[경기 개황]

- 2024년 1/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모두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 소비는 소폭 감소하였고 건설투자와 수출도 감소

경기 레이다<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생산]

- (제조업: 소폭 감소) 석유정제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기계장비 등이 감소하였으며, 조선, 석유화학 및 금속가공은 보합 수준을 기록
- (서비스업: 소폭 감소) 부동산업과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감소

[수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으나 재화 소비는 감소
- (설비투자: 소폭 증가) 철강이 소폭 감소한 반면, 조선, 석유정제·석유화학 등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동차와 비철금속은 증가
- (건설투자: 감소) 공공부문은 착공실적이 늘면서 지난 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은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건설사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
- (수출: 감소) 석유화학제품은 증가하였으나 선박, 자동차, 기계(수송기계 제외), 철강금속제품,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감소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2월 중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되고 농림어업은 감소폭이 소폭 축소되면서 전체 취업자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확대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2월 중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완화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

# 동남권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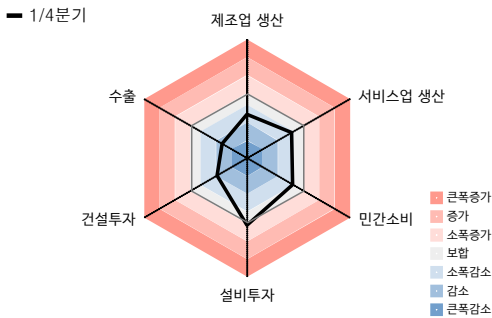
## (1) 개 황

### 동남권 경기 소폭 약화

2024년 1/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하였고 건설투자와 수출도 감소하였다.

1~2월 중 취업자수는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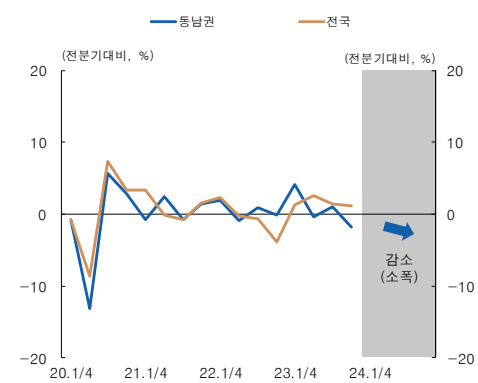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4/4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가 증가하고 자동차 및 부품, 철강, 기계장비 등이 감소하였으며, 조선, 석유화학 및 금속가공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석유정제는 북미지역 환화에 따른 난방유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은 북미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공사<sup>1)</sup> 및 르노의 생산 부진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철강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글로벌 과잉생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기 수주물량의 건조가 이어지면서 전분기의 생산수준을 지속하였다. 석유화학은 중국 등

1)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2월 3~18일 2주간 코나·투싼 하이브리드(3공장) 및 펠리세이드(5공장) 신차 생산을 위한 라인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던 아반떼, 제네시스 세단 등의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다.

주요국 수출이 늘었으나 일부 업체의 원료 수급 불안<sup>2)</sup>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금속가공도 조선 및 방산 호조와 건설경기 위축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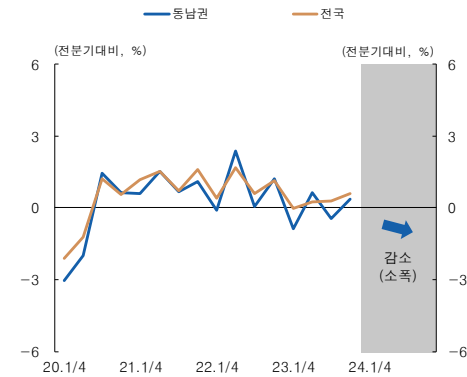
조선은 기 수주 선박의 인도가 계속되고 최근 들어 신규 수주<sup>3)</sup>도 늘면서 당분간 생산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친환경차 및 SUV에 대한 견조한 수출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정된 르노 생산라인 재정비<sup>4)</sup>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과 기계장비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조선과 자동차, 방산 등 전방산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1/4분기와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0)</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은 그간 크게 위축되었던 주택거래가 전분기에 비해 다소 늘면서<sup>5)</sup>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세가 이어지면서<sup>6)</sup>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지역 방문객 수 감소로 전분기보다 생산활동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도·소매업은 재화 소비 위축에 따라 백화점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sup>7)</sup>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은 글로벌 교역량 개선흐름에 따라 부산항 물동량도 확대되면서 현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이번 분기의 주택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sup>8)</sup>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추가적인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이번 분기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도소매업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약화, 소비심리 위축<sup>9)</sup> 등 소비여건 부진이 계속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2) 2월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은 가스제 핵심 원료인 이소아밀 알코올의 수급 불안정으로 해당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기존대비 40~50% 수준으로 낮추었다.  
 3) 1~2월 동남권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량은 월평균 124.6만CGT로 전년 4/4분기(월평균 76.1만CGT)에 비해 63.8% 증가하였다.(Clarksons)  
 4) 급년 하반기 신차 출시를 위해 4~5월 중 부산공장의 생산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5) 1월 중 동남권 주택거래량은 13,093호로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25.0%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6) 1월 중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3.0% 증가하였다.(부산항만공사)  
 7) 1월 동남권 백화점 판매액지수(불변)는 2023년 4/4분기대비 15.3% 감소하였으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6.1% 감소하였다.(통계청)  
 8) 동남권 주택 미분양 물량은 2023년 4/4분기(전기대비) 0.6% 증가하였으며 1월 중에는 4/4분기(월평균)대비 2.1%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9) 동남권 각 지역의 1~2월 평균 소비자출전망지수는 경남이 113.0으로 2023년 4/4분기대비 1.0p 상승하였으나 부산은 1.0p 하락한 107.0, 울산은 2.7p 하락한 106.0을 기록하였다.(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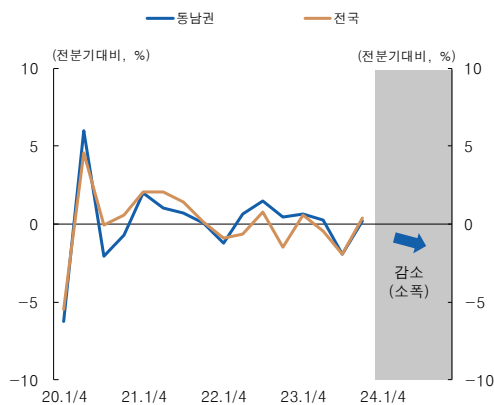
보인다. 숙박·음식점업도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국인을 중심으로 역대 방문객수가 줄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재화 소비가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sup>10)</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는 고금리 및 경기둔화 등에 따라 내구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sup>10)</sup>, 준내구재는 신발·가방 등 잡화류<sup>11)</sup>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도 차량용 연료<sup>12)</sup> 지출이 줄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소비는 운수 등 국내외 여행 관련 지출이

늘고<sup>13)</sup> 의료 관련 지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sup>14)</sup>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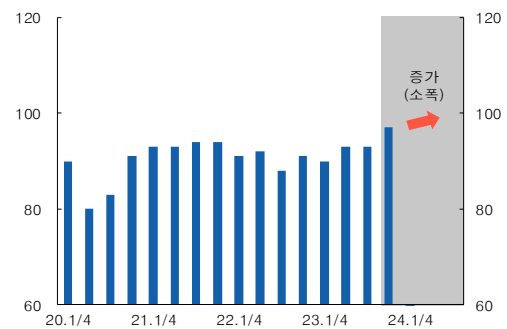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화 소비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내구재 및 준내구재 등 재량적 지출이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소비는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sup>15)</sup>된 가운데 해외여행 회복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항공운수 및 여행사 등 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4/4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비철금속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철강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조선, 석유정제·석유화학 등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 B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10) 24.1월 중 동남권의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22,289대로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1.0% 감소하였다.
- 11) 1~2월 중 동남권의 신변잡화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0.6% 감소하였다.
- 12) 1~2월 중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0.6% 감소하였으며, 1~2월 중 동남권의 연료판매 카드사용액은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0.4% 감소하였다.
- 13) 1~2월 중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1~2월 중 동남권의 여행(항공사, 여행사 등 포함) 카드사용액은 2023년 4/4분기(월평균)대비 7.3% 증가하였다.
- 14) 동남권의 의료기관 카드사용액(전분기 월평균대비)은 23.2/4 4.3% → 3/4 3.8% → 4/4 5.0% → 24.1~2월 6.7% 증가하였다.
- 15) 동남권의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3.2/4 5.3% → 3/4 4.2% → 4/4 4.0% → 24.1~2월 3.5%를 기록하였다.

자동차<sup>16)</sup>는 신사업 확대를 위한 공장 건설 및 생산라인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고, 비철금속<sup>17)</sup>은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설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은 국내외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규투자가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조선은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 일부 업체들의 자금경색 등으로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난 분기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정제·석유화학<sup>18)</sup>은 지난 분기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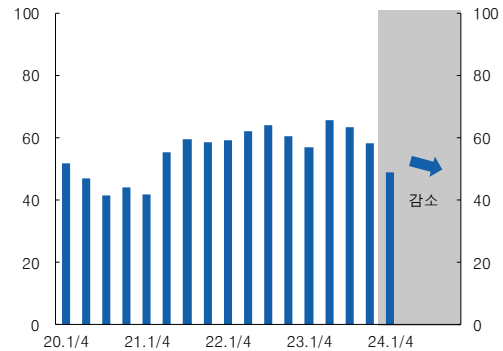
자동차<sup>19)</sup>와 기계장비<sup>20)</sup>의 경우 전기차 및 방산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장비<sup>21)</sup>와 석유정제·석유화학<sup>22)</sup>도 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관련 투자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철강 등 건설부문 후방산업의 경우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신규투자가 이번 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 감소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은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설사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주거

용 건물을 중심으로<sup>23)</sup>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착공실적이 다소 확대되면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2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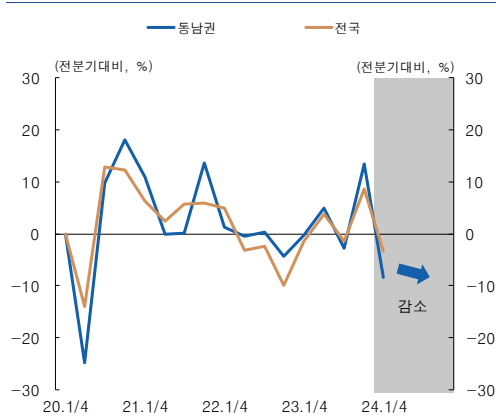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민간부문은 부산지역 대규모 복합시설 건립<sup>24)</sup> 등 일부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증가<sup>25)</sup>하였으나 동남권 전반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증<sup>26)</sup>, 고금리 지속 등으로 당분간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도 선행지표인 건설주주액 감소<sup>27)</sup> 등을 감안할 때 1/4분기의 일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16) 현대차는 생산라인 변경을 위해 울산 3공장과 5공장에 설비공사(2월)를 진행하였으며, 전기차 생산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울산 전기차 공장 신설을 진행 중이다.  
 17)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전해동박, 전구체, 황산니켈) 생산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울산울원인원니켈제련소(4.3만톤/년)를 건설 중이다.  
 18)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구축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사히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19) 현대차는 전기차 진단 및 관리를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울산하이테크센터를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며, KG 모빌리티는 창원 배터리팩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20)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신규 사업 수주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약 8.4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설비보완을 위해 방산부문 및 철도부문에 2024년부터 약 7백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1) 삼성 SDI는 2024년 1/4분기에 울산에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 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22) 롯데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울산2공장에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SK지오센트릭은 하반기부터 1.8조원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울산 ARC, Advanced Recycling Cluster)를 조성할 예정이다.  
 23) 1월 중 동남권의 전체 착공면적은 45만㎡로 전분기(월평균)대비 68.8% 감소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이 각각 96.9%, 21.1%, 0.3%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71.1% 감소, 공공은 8.4%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지하 6층~지상 40층 연면적 117만㎡ 크기의 대규모 복합 소규모 단지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25) 1월 동남권 건축허가면적은 전분기(월평균)대비 128.0% 증가하였다. 특히 상업용 건물이 377.4%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6) 1월 말 동남권 미분양주택은 9,824호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551호로 30.0% 증가하였다.

### 수출 감소

1/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sup>28)</sup>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제품은 증가하였으나 선박, 자동차, 기계(수송기계 제외), 철강금속제품,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일평균 수출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박은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전환하였다.<sup>29)</sup> 자동차 및 부품은 친환경차 등 일부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승용차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sup>30)</sup> 기계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띄었던 지난 분기 대비 주춤하면서 감소<sup>31)</sup> 하였으며, 철강금속제품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감소하였다.<sup>32)</sup> 석

유제품은 수출단가 하락<sup>33)</sup>에 따라 감소 전환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증가하였다.<sup>34)</sup>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박은 조선업 인력 사정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주물량의 인도시점 도래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자동차 및 부품, 기계는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인프라투자 수요 확대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석유제품은 OPEC 원유 감산 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압력<sup>36)</sup>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은 주요 수출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1/4분기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4)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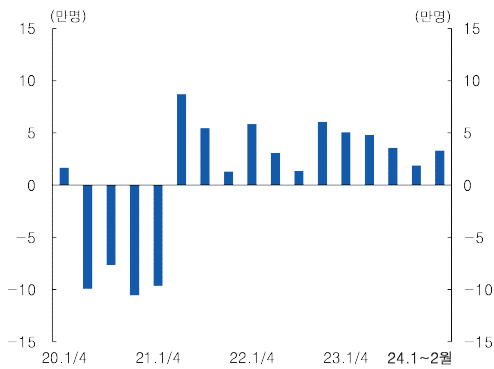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2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3만명 증가하여 전분기(+1.9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7.0 → +5.6만명)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3.6 → -4.0만명)은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0.3 → +2.6만명)은 증가로 전환되고 농림어업(-1.3 → -0.9만명)은 감소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4.0 → -3.8만명)는 감소

27) 1월 중 동남권 건설수주액은 1.1조원으로 전분기(일평균)대비 57.0%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이 0.7조원으로 58.9% 감소했으며, 공공부문도 0.3조원으로 49.8%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28) 1~2월 중 동남권의 일평균 수출액(5.4억달러)은 전분기(5.8억달러)대비 8.4%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29) 2023년 4/4분기 선박수출(MTI 7461)은 전기대비 77.8% 증가하였다.  
 30) 1~2월 중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MTI 741, 742)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6.7% 감소(자동차 -9.9%, 자동차부품 +12.3%)하였다.  
 31) 1~2월 중 동남권 기계(수송기계 제외)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 71)와 기타기계류(MTI 79)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5.4% 감소하였으며, 미국 수출은 전분기대비 12.4% 감소하였다.  
 32) 1~2월 중 동남권 철강금속제품(MTI 6)은 중국 수출(-27.5%)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5.5% 감소하였다.  
 33) 1~2월 중 두바이유(80.0달러/bbl)는 전분기(83.8달러/bbl)대비 4.5% 하락하였으며, 동남권 석유제품(MTI 133)의 수출단가는 전분기대비 1.2% 하락하였다.  
 34) 1~2월 동남권 석유화학제품(MTI 21)은 제품단가가 전분기대비 2.1% 상승한 가운데 중국 및 미국 수출은 각각 전분기대비 25.2%, 33.2% 증가하였다.  
 35) 2021년 중 동남권에 조선소가 위치한 국내 대형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선박수주물량(CGT 기준)은 2017-2020년 평균 수주물량의 2.5배 수준으로 이 중 50.4%가 2024년 중 인도될 예정이다.(Clarksons)  
 36) 최근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bbl, 일평균) 흐름을 보면 2023년 12월 77.2 → 2024년 1월 78.9 → 2024년 2월 81.2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폭이 전분기보다 다소 줄었으며 임금근로자(+5.9 → +7.1만명)는 임시근로자(+1.0 → +3.9만명)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부산은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울산은 감소로 전환되는 등 지역별로 엇갈리는 모습이였다.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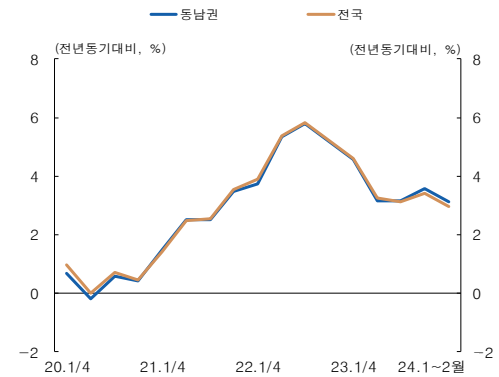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1%로 전분기(3.6%)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확대(15.6% → 18.4%)되고 석유류 가격<sup>37)</sup> 하락세가 둔화(-3.6% → -3.0%)되었으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2.7% → 1.9%)과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3.2% → 2.8%)의 상승세가 완화된 데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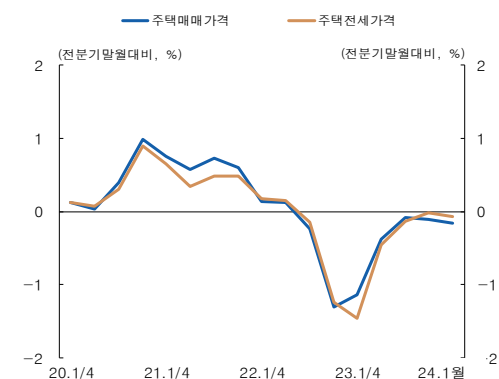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 확대

1~2월 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말월대비 0.17% 및 0.07% 하락하면서 전년 4/4분기(-0.10%, -0.02%)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의 경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은 주택매매가격이 하락 반전했지만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 및 전세 수급지수도 1~2월 중 84.7과 89.2로 전분기(86.6, 90.1)보다 낮아져 매도우위 흐름이 강화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말 기준. 단, 표본재설계 이전인 2021.6월까지의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37)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4/4분기 중 -0.9%에서 1~2월 중 -0.7%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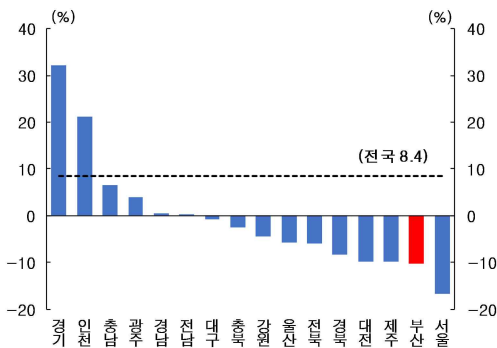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부진 지속

부산본부 김하영 과장, 김지원 조사역

부산지역 제조업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3년 4/4분기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0.2% 줄어 16개 광역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 등 IT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폭 확대(+8.4%)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팬데믹 이전 대비 지역별 제조업 생산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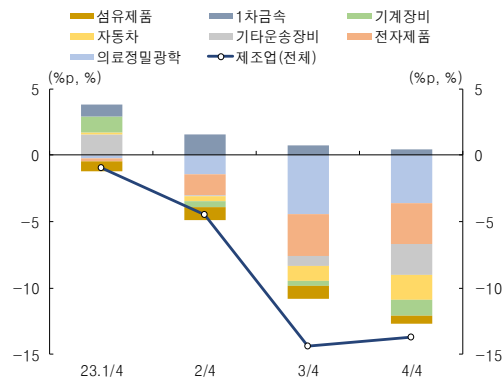


주: 1) 2019년 분기 생산지수(SA) 연평균대비 2023년 4/4분기 생산지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최근의 흐름도 2023년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 기계·운송장비와 섬유제품 등 부산지역 대표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 중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의료정밀, 전자제품 등의 생산활동도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부산지역의 유일한 완성차업체인 르노코리아의 주력 차종(XM3, QM6) 판매가 부진<sup>1)</sup>한 가운데 신규 모델 부재로 매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면서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관련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도 지난해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각각 22.3% 및 46.1% 감소하였다.

부산지역 제조제조업 생산 업종별 기여도<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기준  
자료: 통계청

조선업은 풍부한 수주잔량<sup>2)</sup>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및 인건비·자재비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업체들의 자금상황 악화와 생산차질<sup>3)</sup>로 이어져 지난해 4/4분기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33.6% 감소하였다.

섬유제품의 경우 지역 내 생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들어 경기둔화에 따른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 위축 및 고물가에 따른 중국산 저가제품 수요 확대로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7% 감소하였다.

의료정밀광학은 2010년대 이후 지역내 생산이 지속 확대되어 왔고 팬데믹 이후에도 빠른 개선세를

1) 지난해 르노코리아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총 10만4276대(내수 2만2047대, 수출 8만2228대)로 전년대비 38.5% 감소하였다. 내수와 수출이 각각 58.1%, 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 2024년 1월 부산의 주요 조선업체(비중공업, 대선조선) 수주잔량은 562천CGT로 17~19년 평균 수주잔량 대비 2.7배 많은 수준이다.(Clarksons)  
3)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9월호)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주요 조선업체 자금난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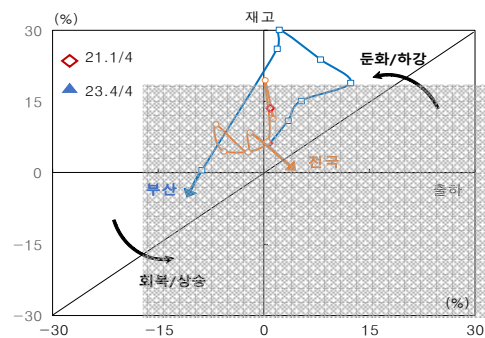
보였으나 최근 들어 치과용 임플란트 가격 하락<sup>4)</sup>,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46.5% 감소하였다.

전자제품의 경우 팬데믹 기간중 PC, 가전 등 전자·전기장비의 생산 급증에 따라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방산업의 글로벌 수요 둔화로 생산이 크게 위축되며 지난해 4/4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42.4% 감소하였다.

향후 부산지역 제조업은 국내 제조업 경기 호전과 함께 점차 개선호름을 보이겠지만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이 글로벌 수요 반등에 따라 IT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산은 관련 산업의 비중<sup>5)</sup>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작고 IT 부문 개선의 여타산업 파급에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재고출하 순환도 상에서도 전국 제조업은 지난해 4/4분기 기준 회복·상승 국면에 진입한 반면, 부산의 경우 출하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둔화·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국면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재고출하<sup>1)</sup> 순환도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경기 개선의 영향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르노코리아 신차(오로라1) 출시<sup>6)</sup>, 조선업 자금난 완화<sup>7)</sup>, 선박 인도 본격화 등 긍정적 요인이 뒷받침되면서 업황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기계장비도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시차를 두고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기업들과 지자체도 이러한 제조업 부진 장기화에 대응하여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sup>8)</sup>하고 있으며 부산시 차원에서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조선 부문에서도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계와 지자체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는 지역경제의 성장모멘텀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관련 부산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
자동차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기반구축 (24년 ~27년, 300억원)</li> <li>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지원 기반구축 (23년 ~ 25년, 73억원)</li> </ul>
조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중소형 선박기술 역량강화사업 (22년 ~ 25년, 249억원)</li> <li>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 (23년 ~ 25년, 100억원)</li> </ul>

자료: 부산시

- 4) 지난해 4월 시행된 중국의 VBP(Volume-Based Procurement, 정부 주도의 의약품 대량구매 정책)에 치과용 임플란트가 포함되면서 부산소재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의 판매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시장에서는 VBP로 인한 가격하락 영향이 올 1/4분기에 마무리되고 중국 내수시장의 임플란트 수요 확대로 2/4분기부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nGuide)
- 5) 부산 제조업 중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8%(2022년 GRDP 기준)로 전국(31.9%) 및 대도시 평균(21.4%)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
- 6) 르노코리아는 4년만에 내수시장을 겨냥한 신차 개발 프로젝트(오로라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금년 4~5월 중 생산라인 정비 후 하반기 중 첫 번째 신차인 오로라1(하이브리드 중형 SUV)을 출시할 계획이다.
- 7) 대선조선은 워크아웃을 통해 영도조선소 부지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수익성이 높은 선박 위주로 수주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 8) 부산시와 르노코리아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2023년 5월)을 통해 부산공장 내 '예코 클러스터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스웨덴 전기차업체 폴스타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전기차(폴스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2023년 11월)하였다.

< 별첨 >

동남권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제조업 생산 <sup>1)</sup>	1.7	-0.4	-0.2	-1.0 <sup>p</sup>	-2.4	-0.4	-0.3 <sup>p</sup>	13.7 <sup>p</sup>	..
서비스업 생산 <sup>2)</sup>	5.3	0.6	0.4	-0.6	—	—	—	—	—
비제조업 매출BSI <sup>3)</sup>	71	76	74	73	76	71	71	69	70
컨테이너 처리량	1.4	4.3	5.5	8.3	4.0	11.0	10.1	8.3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3.2	3.0	-0.6	-0.9 <sup>p</su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sup>2)</sup>	2.1	1.6	0.7	1.9 <sup>p</sup>	-2.7	4.7	4.0 <sup>p</sup>	-9.3 <sup>p</su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sup>3)</sup>	91	90	93	93	92	93	93	98	96
건설업 업황BSI <sup>3)</sup>	57	66	63	58	60	58	57	50	48
수출 <sup>4)</sup>	-1.2	-1.8	-3.4	11.3	17.7	2.9	13.2	18.5	-3.8
취업자수 증가 <sup>5)6)</sup>	5.1	4.8	3.6	1.9	4.6	0.3	0.8	1.4	5.2
(비농림어업)	(4.8)	(5.9)	(5.2)	(3.2)	(5.2)	(1.9)	(2.6)	(2.5)	(6.0)
고용률 <sup>6)</sup>	58.8	60.4	60.2	59.8	60.4	60.0	59.1	58.5	59.3
소비자물가	4.4	3.2	3.2	3.6	3.9	3.4	3.4	2.9	3.4
주택매매가격 <sup>7)</sup>	-3.4	-1.1	-0.2	-0.3	0.0	-0.1	-0.2	-0.2	-0.2
주택전세가격 <sup>7)</sup>	-4.4	-1.4	-0.4	-0.1	0.0	0.0	-0.1	-0.1	-0.1
기업자금사정BSI <sup>3)</sup>	69	71	77	73	74	72	74	71	72

주: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부산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제조업 생산 <sup>1)</sup>	1.4	-3.0	-11.9	-10.1 <sup>p</sup>	-13.8	-10.7	-5.7 <sup>p</sup>	8.4 <sup>p</sup>	..
서비스업 생산 <sup>2)</sup>	4.3	0.8	0.2	-0.7	—	—	—	—	—
비제조업 매출BSI <sup>3)</sup>	71	76	74	73	72	60	66	67	60
컨테이너 처리량	1.6	4.3	5.4	8.3	3.6	11.4	10.0	8.3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4.1	4.5	2.0	3.5 <sup>p</su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sup>2)</sup>	-0.4	0.3	0.2	2.3 <sup>p</sup>	-3.0	4.0	6.0 <sup>p</sup>	-6.5 <sup>p</su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sup>3)</sup>	93	97	97	96	93	97	99	97	94
건설업 업황BSI <sup>3)</sup>	59	70	64	58	59	55	60	56	42
수출 <sup>4)</sup>	-6.7	-5.2	-9.7	-5.0	-9.5	-4.4	-1.1	-9.8	0.1
취업자수 증가 <sup>5)6)</sup>	3.4	1.6	0.9	-0.8	0.9	-1.4	-1.9	-2.3	2.1
(비농림어업)	(3.1)	(1.3)	(0.3)	(-1.0)	(0.6)	(-1.5)	(-2.0)	(-2.1)	(2.2)
고용률 <sup>6)</sup>	57.2	57.9	58.2	57.5	58.1	57.5	57.0	56.5	57.6
소비자물가	4.5	3.4	3.3	3.7	4.0	3.5	3.5	3.0	3.5
주택매매가격 <sup>7)</sup>	-4.3	-1.4	-0.5	-0.6	-0.1	-0.2	-0.3	-0.2	-0.3
주택전세가격 <sup>7)</sup>	-5.5	-1.6	-0.6	-0.3	0.0	-0.1	-0.2	-0.1	-0.2
기업자금사정BSI <sup>3)</sup>	75	78	80	78	81	76	77	75	74

주: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